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7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1\_ 국내 첫 입체 인쇄 개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만 주로 활용됐던 기술 방식인 입체 인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1967년 6월30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당시 박기연 광명인쇄공사 상무와 이말연 정음사 편집부장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이 입체 인쇄 방식으로 향후 국내 기술이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시보는 입체 방식을 이용한 인쇄 기술은 평판 방식에서 크게 제한을 받아왔던 입체 사진영상, 레지큐라 렌즈의 응용, 고정밀 제판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로 인해 시간 및 인력, 경비 등의 절감 효과도 가져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체 방식은 1960년대 초반 일본의 한 활판인쇄 제조업체가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 단계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시보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기술적인 노하우의 공개를 꺼렸던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 2\_ 킹크로스 잉크 개발

특수 광택지에 적합한 킹크로스 잉크가 개발됐다. 1969년 7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국내 잉크제조 기술의 양대 산맥인 대한잉크사가 COP(크리스탈·코트지), GB(그로스·보드), MB(미라·보드) 등 특수 광택지에 적합한 잉크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보는 특히 이 같

은 내용을 기술하면서 "인쇄 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표면 강도가 기존에 출시된 잉크 제품에 비해 크게 강화됐고 광택이 우수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당시 새로운 종류의 출현이 반기별로 지속적인 출현을 이어감에 따라 상업 인쇄의 폭이 그만큼 다양해졌고 광택지가 국내 시장에서 보급이 안정세를 보이며 특수지의 출현에도 지대한 관심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킹크로스 잉크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시보는 무엇보다도 끈질긴 점도 유전성이 잘 조정돼 잉크 단독으로도 인쇄 적성에 맞도록 제조됐으며 광택이 우수해 입체감이 풍부하고 색감이 뛰어나다고 전했다.

## 3\_ 송전기계 타발기 우량 공산품

서울시가 주최한 '제13회 우량공산품 시상식'에서 송전기계제작소의 4×6전 타발기가 인쇄기기 부문에 선정됐다. 인쇄문화시보(1968년 7월15일자)에 보도된 이 기사는 당시 송전기계제작소가 3년여의 연구 개발을 거쳐 개발한 타발기가 1964년과 1966년, 그리고 1967년에 이어 4번째로 수상한 경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시보는 "다른 업종의 기기들도 매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주최측 한 관계업자의 말을 인용, 송전기계제작소는 단지 기계를 제작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꾸준한 연구 개발에 투자해 오프셋 인쇄 기기뿐만 아니라 선진국형의 기계 제작에도 앞장을 서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우

수 공산품에 선정된 4×6전 타발기는 당시에 시판되고 있었던 기종에 비해 물의 마모성이 적고 리프트 등의 주변기기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어 납품 기일을 중요시하는 작업자와 고급 인쇄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이뤘다는 것이 우량 공산품에 선정된 기준이 됐다.

## 4\_ 국사 교과서 단일화

1973년은 전국 중등학교의 국사교과서가 나라에서 제작된 해로 기록됐다. 인쇄문화시보는 7월1일자 보도를 통해 대입 예비고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치르기 위해 필수과목인 국사를 단일화해 문교부에서 제작한다는 공포문을 비교적 의미있게 다뤘다. 이로 인해 문교부의 검인정을 받아 발행해 오던 국사교과서는 이듬해인 1974년부터 민간 출판사가 아닌 문교부에서 제작하게 됐다. 시보는 이 같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역사외식의 교정과 일관성 있는 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큰 개정 이유라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왜곡돼 온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역사학자들에게 의해서 밝혀진 연구 성과가 통일돼 향후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소수 학자들의 의견만이 수록돼 다양하고 올바른 역사 해석이 이뤄질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 5\_ 자동 오프셋기 첫 선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자동 오프셋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인쇄문화시보는 1976년 7월15일자 보도를 통해 인쇄기기 전문 개발체인 대구중공업(주)(대표 여성구)에 의해 순수한 국산 기술로 작동이 가능한 오프셋 인쇄기가 선을 보이고 본격적인 제작 시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보는 이에 대해 생산비 절감과 수입대체 효과를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기기의 개발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해 온 오프셋기의 수요를 대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크게 호평했다. 대구중공업은 현재 재단기 전문 제조업체인 대중기계의 전신으로 각종 주물과 인쇄기 주변기기들을 생산해 온 업체. 1975년 처음으로 4절 오프셋 인쇄기를 개발해 국내에 보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시판은 충분한 가동 점검을 끝내고 이듬해인 1977년부터 개시할 것이라고 시보는 전했다.

## 6\_ 대한인크 '프라이드 50' 출시

대한인크가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프셋인크 4차원색 '프라이드 50'을 개발했다. 인쇄신문은 1994년 7월1일자 보도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앞둔 대한인크가 인쇄물의 고품질화 및 다변화 돼가는 인쇄시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쇄인크 부문을 따로 독립하고 개발한 4차원

색 인크에 대해 선명도가 한층 더 보강된 제품이라고 전했다. '프라이드 50'은 인쇄기의 고속화로 발생하는 기계의 잡열 및 하절기 기온 상승에 따라 초래하는 작업상의 문제를 인크 제조 시 특수 합성 수지를 첨가, 고속 인쇄에 적합하다. 또 색상은 맑으면서도 인크의 농도가 강해 인쇄 시 작업자의 색상 조절이 용이하다. 인쇄신문은 또 무알콜 작업시에도 망점 재현성이 우수하게 설계됐으며 저공해 타입의 인크로 작업자의 건강까지 고려된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이 제품은 대한인크가 일본의 전문 인크 제조사인 DIC사에 기술자들을 파견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 7\_ 지방인쇄업체 불황 심각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이 운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7월16일에 발행된 인쇄문화시보 1면에는 '지역 간 불평등 심화'라는 머릿글을 바탕으로 인쇄물 주수에서 거머쥔 관리까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의 현실에 대해 다뤘다. 시보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각 지역에서 나오는 관공서 등의 인쇄 물량이 해당 지역의 인쇄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형 인쇄업체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바로 덩핑을 통한 주수 경쟁 때문에 중소 업체들은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보는 "새롭게 창출되는 주수 물

량에 대한 정보가 입수돼도 아예 입찰조차 못해 보고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부산 지역 한 인쇄업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환율 인상으로 인한 수출 물량 저하와 전문 인력의 공급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 8\_ 1회 한글서체 공모전

다양한 한글 글자체의 개발을 위한 공모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1993년 7월16일자 인쇄신문은 이 공모전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쇄산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1회 한글서체 공모전'에 대해 인쇄신문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전자 출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인쇄·출판 산업 또한 질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체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바탕·돋움·제록체 등 한글 기본 글자체를 개발해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왔다. 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글자 체계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전환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공모전을 기점으로 민간 업체들이 서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응모는 응모자가 직접 작성한 것에 한했으며 5×5cm 이상의 평면에 1자씩 인킹 또는 프린팅해 완성된 원도로 제한했다. 당시 이 행사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주관했으며 (주)서울시스템이 후원했다. <장홍일 기자>